

KÓKKOS 4

• 코코스는 '현영의 믿음의미' • '평행의 최영권' • '편지투기'이강동 •

✻ 한국성서대학교 KOREAN BIBLE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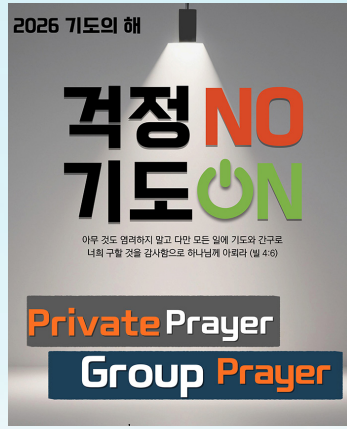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 TEL. 02-950-5401 • www.kbbu.ac.kr •



APR 2026

VOL. 288

▲ 제42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회장으로 새롭게 선출된 이금주 회장(왼쪽, 성서 4)과 김대현 부회장(성서 3), '학교와 소망, 학우와 소망, 신앙과 소망'의 가치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성서공동체를 이뤄가는 W!sh 총학이 되겠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4면]



‘2026년 기도의 해’ 선포 “걱정 NO, 기도 ON”

박태수 교목실장 “기도는 힘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2026년 올해는 ‘기도의 해’ (Year of Prayer)이다. 말씀, 기도, 전도, 봉사 등 4개의 신앙 주제가 매년 돌아가는 가운데 올해 ‘기도의 해’를 맞았다.

교목실장 박태수 교수는 3월 개학과 함께 기도의 해 표어로 “걱정 NO, 기도 ON” 캠페인을 선포하며 “기도는 힘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고 성서대 모든 구성원에게 요청했다.

‘기도의 해’ 첫 역점 사업은 ‘개인기도 운동’이다. 매일 채플 전 10분 동안(11시 40분~50분까지) 로고스홀에서 ‘개인기도 시간’을 갖도록 학우들을 돕는 일이다. 3월 23일 시작하였는데 첫날은 86명이 참여하였고, 24일 88명, 25일 92명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목실은 개인기도 신청자에게 매일 기도문을 SNS로 보내기도를 돕고 있다.

두 번째 사업은 ‘공동체기도 운동’이다. 기도를 위한 소그룹을 조직하여 주 1회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 방법을 공유하며 훈

련을 쌓아가는 그룹 기도 운동이다. 34개의 학생 기도그룹과 29개의 교직원 기도그룹이 결성되었다. 세 번째는 “걱정 NO, 기도 ON” 제목의 소책자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도의 해’에 학우들이 개인 혹은 그룹 기도를 통해 얻은 경험, 간증 등을 모아 소책자를 만들어 기록으로 남긴다는 계획이다.

박태수 교목실장은 학우들에게 “기도의 해 목표는 기도가 갖고 있는 큰 가치와 그 필요성을 재발견하는 것”이며 “이번 기도의 해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기도가 우리 일상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 습관이 체화되어야 하고 혼자보다는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관 부서인 교목실은 기도를 돕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공하고 그 외에도 학우들의 요청이 있으면 힘을 다해 자료와 협력 등 필요에 응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기도의 해 1년 스케줄

사업명	3월	4월	5월	6월
개인기도	* 3/23~6/19 : 학기 중 매일 채플 전 11시 40분 ~ 11시 50분 기도 모임 운동 진행 * 개인 기도 신청자 SNS로 매주 월요일 개인 기도문 발송	7주차(4/20~24) : 간증문 작성 집중 주간	지속 운영 및 참여 유지	14주차(6/8~12) : 간증문 작성 집중 주간
	캠페인 참여 독려			
공동체기도	* 3/23~6/19 : 매주 1회 소그룹 공동체기도 모임 운동 진행 * 소그룹 신청자 SNS로 매주 월요일 공동체 기도문 발송(학생 34개 소그룹, 교직원 29개 소그룹)	소그룹 정착 및 참여 활성화	공동체 소그룹 기도 지속 운영	학기 마무리 기도 모임
	소그룹 구성 및 운영 시작			
사업명	9월	10월	11월	12월
개인기도	* 9/7~12/11 : 학기 중 매일 채플 전 11시 40분 ~ 11시 50분 기도 모임 운동 진행 * 개인 기도 신청자 SNS로 매주 월요일 개인 기도문 발송	지속 운영 및 참여 유지	지속 운영 및 참여 유지	지속 운영 및 참여 유지
	캠페인 참여 독려			
공동체기도	* 9/7~12/11 : 매주 1회 소그룹 공동체기도 모임 운동 진행 * 소그룹 신청자 SNS로 매주 월요일 공동체 기도문 발송(학생 34개 소그룹, 교직원 29개 소그룹)	소그룹 정착 및 참여 활성화	공동체 소그룹 기도 지속 운영	학기 마무리 기도 모임
	기존 소그룹 중심 재정비 및 추가 모집			

교정의 아침을 깨우는 성경 읽는 소리

일반교양의 BRC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

BRC 134명 - 캠퍼스 전체에 생동감 불어 넣어



2026학년도 개학 첫 시간 성경읽기(Bible Reading Class)가 시작되었다. 성서학과 1학년 63명, AI융합학부 59명은 필수, 일반교양 BRC 12명은 선택으로 모두 134명의 학생들이 아침 8시(성서학과, 일반교양)와 9시(AI)에 성경을 읽는다. 교정의 아침을 깨우는 이들의 성경 읽는 소리는 캠퍼스 전체에 생동감이 넘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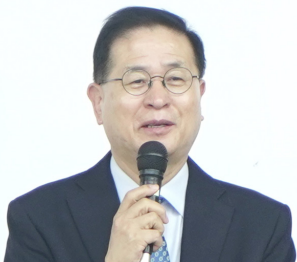
2026학번 학우들은 예년에 비해 좋은 출석율을 보이고 있다. 학기의 1/4이 지난 3월 말 현재 장기 결석자(5일이상 결석)는 성서 4명, AI 3명, 일반 교양 2명으로 6.72%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학우들(93.28%)이 충실히 성경을 읽고 있다. 각반의 반별 출석율은 이보다는 조금 떨어져 성서 88.9%, AI 88.7%, 일반교양 84.6%를 기록하고 있다.

성서학과와 BRC는 2014년 처음 개설되어 이미 12년의 연륜을 쌓았다. “프로그램의 체계가 정착되어 무리 없이 클래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성서학과 담당 교수의 말이다. 학우들도 “성경읽기에 대한 동기부여, 동료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고 많은 친구를 갖게 되었다”는 긍정적 반응이다. AI-BRC는 2025년 시작되어 올해 2년차이지만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성찰질문에도 진지한 의견을 서슴없이 말한다”고 전했다. BRC는 선배들이 조장, 조원이 되어 후배들을 돕는 것이 전통인데 AI-BRC는 9시에 개설되어 도울 선배들이 없고 같은 반에서 조장을 선출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4년 만에 개설된 일반교양의 BRC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 2021-1학기 개설되었지만 신청자가 없어 21-1, 2학기과 22-2학기를 빼고는 폐강되었다. 이번에도 3명이 모자라 개설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학교의 특별한 배려로 폐강을 면했다. 이번 학기 담당 교수는 새로 목사안수를 받은 이성아 교수가 의욕적으로 임하고 있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먼저 말씀을 읽고
내 귀와 내면 안에
새겨지게 하는
첫 번째 작업이 BRC다”

최정권 총장, 26-1학기
BRC 연합개강예배 설교



▲ 최정권 총장이 BRC 연합 개강예배에서 학우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2026년도 BRC 연합개강예배가 9일 오전 8시 일립관 설교실습실에서 개최되었다. 최정권 총장은 ‘먹어야 하는 사람들’(에 3:1~3)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먼저 말씀을 먹이라고 명하신다. 이는 말씀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명령이다. 설교자에게는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책임이 있다. 그러려면 단어의 정의와 텍스트 해석이 중요하고 단계마다 믿음이 수반된 진리의 영이 담겨야 한다. 먼저 말씀을 읽고 내 귀와 내면 안에 새겨지게 하는 첫 번째 작업이 BRC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BRC의 지도교수와 섬김이는 다음과 같다.

2026-BRC 담당교수, 조장, 조교 명단

구분	성서학과		AI 융합학부			기초교양
	A 31명	B 30명	A 19명	B 20명	C 19명	
반별인원	A 31명	B 30명	A 19명	B 20명	C 19명	12명
담당교수	김현광	박태수	강규성	한진호	박상민	이성아
조교 (*조장)	*남궁이레 김대범 이예진 정민기 조예진	*최인성 김선덕 김세연 방민아 이민영 지성은	김상우 박미현 김태훈 이현서	김재성 김민수 오창현 오지성	김국현 박진호 원민재 송유민	

제42대 W!sh 총학 출범

“자족의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회장 이금주, 부회장 김대현 학우



▲ 최정권 총장이 이금주 회장에게 학교 교기를 전달하고 있다.

제42대 W!sh 총학 출범식이 4월 2일 채플 후 로고스홀에서 홍영운(사복 3) 총무 사회로 진행되었다. 인준장 수여, 총학지원금 증정 및 이·취임사와 임원진 소개, 총장 격려사 순서로 이어졌다.

제41대 With 총학 유준하 회장은 이임사에서 “우리 With가 학우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랑으로 소임을 감당해 왔으며 앞으로도 학교가 더 따뜻하고 단단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길 진심으로 소망한다”라고 했다.

제42대 W!sh 총학의 이금주(성서4)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학교와 소망, 학우와 소망, 신앙과 소망의 가치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성서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열정을 쏟는 총학생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제42대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지난 해 후보자 미등록으로 선거 시행세칙을 개정 후 올해 3월 25일 치르게 됐다. 단일후보로 회장 이금주(성서4), 부회장 김대현(성서3) 학우가 출마하였으며 유권자 950명 가운데 492명(51.78%)이 참여, 찬성 445명(90.45%), 반대 40명(8.13%), 무효 7명(1.42%)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42대 총학은 W!sh 총학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며 학우들이 바라는 작은 소망과 희망까지 소중히 여겨 함께 이뤄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26-1학기 개강예배 박태수 교목실장 설교

“자족의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 박태수 교목실장이 개강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2026학년도 1학기 개강예배가 9일 낮 12시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박태수 교목실장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빌 4:10~13)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박 목사는 “자족함이란 비천과 풍부, 배고픔과 궁핍 등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정을 말한다. 자족의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의 근원인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일에 열정을 쏟는 성서공동체가 되자”라고 말했다.

최정권 총장은 “절망에 놓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것이 희망이다. 희망은 우리에게 미래를 향해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붙잡고 이번 학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자”라고 권면하였다.

이에 앞서 이찬호 학우(성서 4,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가 “새 학기에도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공동체가 경험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2026학년도 54개 위원회 구성 완료

당연직, 업무관련성 따라 임명

최은희 부총장
위원장직 9개, 위원직 31개로 최다

2026학년도 교내 54개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임명되었다. 위원회는 총장직속 20개 위원회, 일립대학 17, 대학원 4, 입학-국제교류본부 5개, 일립행정본부 8개로 전체 54개 위원회로 구성된다. 이번 구성은 본인의 보직과 업무관련성에 따른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당수는 규정상 당연직으로 임명되었다.

▲ 신학 ▲ 교무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의 위원장은 최정권 총장이 직접 맡았고 ▲ 교원인사 ▲ 대학혁신운용위원회 위원장에는 강규성 부총장이 임명되었다. ▲ 학사관리 ▲ 교육과정 ▲ 학술연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최은희 학사부총장이 임명되었다. 임지영 성과관리실장은 ▲ 성과관리 ▲ 대학혁신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 비교과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성아 NSLB교육지원단장이 임명되었다. ▲ 대학원 운영위원회 등 대학원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조혜경 대학원장이 맡았고 ▲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등 입학관련위원회의 위원장은 최육열 입학-국제교류본부장이 임명되었고 ▲ 직원인사 ▲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행정 관련 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종완 본부장이 임명되었다.

위원장 중 외부 인사로는 대학평의원회 박종걸 위원장(경성교회 담임)과 위원 22명이 임명되었다.

54개 위원장 직 중 최은희 교수가 가장 많은 9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고 그 다음이 최정권 총장, 강규성 부총장으로 각 7개 위원회, 조혜경 대학원장, 최육열 본부장이 4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대부분의 교수가 54개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는데 최은희 부총장이 그 중 가장 많은 31개 위원회 위원(위원장 직 포함)으로 임명되었다. 그다음이 김종완 본부장 18개, 권경만 실장 16개, 박태수 교목 실장, 강규성 부총장이 각각 14개, 최육열 본부장, 한진호 교수, 유미나 팀장이 각각 12개의 위원직을 맡았다.

(홈페이지 공지사항 '5862 [위원회] 2026학년도 54개 위원회 임명(2026.3.9.)' 참조)

신입생 학부모 초청간담회

4월 28일(화) 오후 6시 30분

2026년 신입생 학부모 초청간담회가 오는 4월 28일(화) 오후 6시 30분 밀알관 로고스홀에서 개최된다. 초청간담회는 올해 입학한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리 대학의 정체성과 교육이념, 공동체를 소개하고 자녀의 비전과 복음전도자 양성을 함께 이뤄가기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

간담회는 1부 개회 예배와 2부 보직자 소개, 최정권 총장의 환영사 및 대학 소개가 이어지고 이후 학과별 간담회 순서로 진행된다. 5개 장소에서 갖는 학과별 간담회에서는 전공 교수 소개 및 학과별 특화사업과 진로지도 소개, 질의응답을 통한 학과의 비전과 경쟁력 등을 학부모와 공유하게 된다.



2026년도 FT 강사 김한요 목사

“부흥의 역군으로 거듭나는 은혜”



▲ FT 강사 김한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2026학년도 FT(Faith Training)가 3월 16~18일까지 교내에서 진행되었다. 김한요 목사(미국 남가주, 베델교회 담임)가 사흘간 요나서 중심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 권영빈 성우(EBS)와 장성호 감독(애니메이션 KING OF KING)이 특강 강사로 자신에게 임재한 경험을 전하였다.

김한요 목사는 요나의 죄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과정을 통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긴박하게 설교하였다. 요나는 결국 니느웨의 부흥의 역군으로 나타나게 된다. 3일간의 설교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날 (16일) | 요나의 죄 (요나서 1장)

요나는 명령을 어기고 달아난 도망자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서 벗어나려는 유전자가 뿔속 깊이 박힌 죄인들이다.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벗어나려는 죄의식과 타성에 젖은 바리새인도 경계해야 한다.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자.

▲ 둘째 날 (17일) | 요나의 기도 (요나서 2장)

주님은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 폭풍을 몰고 추적하면서도 반대로 살려 줄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그는 믿는 자들에게 인생을 돌아보며 크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하신다. 요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꿈과 비전을 이루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 셋째 날 (18일) | 요나의 회개 (요나서 3장)

부흥은 한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니느웨를 위해 요나를 쓰면서 그를 부흥의 역군 되게 하였다. 회개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는 값진 행위이다. 말씀과 기도로 부흥의 역군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한다.

‘학생-교수 KCI 학술 논문’

이소정, 홍소윤 교수 지도, 게재 확정

총 13개 팀이 참가한 2005년도 ‘학생-교수 간 공동 프로젝트’에서 이미 발표된 10개의 학술연구논문(코코스 2026년 3월호 5면) 외에 2개의 논문이 추가로 게재 확정되었다.

추가 게재 확정된 논문의 지도교수와 논문제목, 게재학술지는 다음과 같다.

학과	지도교수	제 목	게재지
간호학과	이소정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직업적, 소명의식, 취업불안이 중도탈락 의도에 미치는 영향	직업건강연구 (4월 출간 예정)
	홍소윤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공감능력, 소명의식,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7(3) 3월 출간)

신·편입생 대상 전도 집회

“여러분,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40명이 결신, CCC 노경찬 간사

지난 3월 25일 로고스홀에서 가진 전도집회에서 금년도 신·편입생 4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결신하는 열매를 맺었다. 이 집회는 CCC 노경찬 간사(경희대 담당)가 인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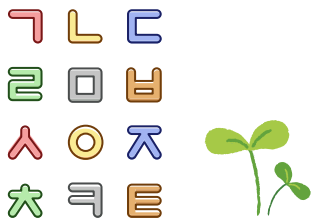
노경찬 간사는 간증을 통해 “여러분,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죄와 죄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혼을 회복케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학우들이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번 집회에는 신·편입생 267명이 참석했으며 그 중 83명(32%)이 미신자였다. AI 융합학부에 미신자가 많았고(27명) 결신자도 13명으로 제일 많았다.

집회 마지막 순서로 대학교회 정영은 청년부 담당 목사가 대학교회를 소개하고 새로 결신을 약속한 학우와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한 신·편입생들을 대학교회로 초청하였다. 주무 부서인 교목실은 결신 학우들의 책임 지도교수와 함께 대학교회와 연대하여 결신 학우 양육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국어 수업, 관계 형성 등 고충 호소

2026년 외국인 유학생 간담회



‘2026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간담회’가 25일 천마홀에서 교수학습센터(센터장 윤혜진)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10개국 28명의 유학생과 교직원 포함 30명이 참석했다.

학교측에서는 이날 최사랑 진로심리상담센터장, 문지에 취창업지원센터장, 윤혜진 교수학습센터장, 유미나 교학팀장, 박인혁 국제교류센터장이 각각 상담, 취업, 학습지원, 학사제도와 교내 프로그램을 상세히 안내했다. 유학생들은 제공된 관련 내용을 꼼꼼히 메모하고 질의를 이어가며 학업 정보 수집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간담회 후 설문을 통해 ‘한국어 수업 이해 부족’을 재학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 뒤이어 관계 형성과 진로 준비 등에도 고충을 호소했다.

NSLB 이성아 단장은 “유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부서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외국인 유학생 간담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함께 손하트를 날리고 있다.

최정권 총장

별내동안교회 새벽기도회 인도

최정권 총장이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남양주시의 별내동안교회(담임 나광현 목사)에서 '회복(Re-Build), 나를 다시 세우다'를 주제로 '2026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인도하였다.

* 3.30(월) - 기초 : 예배(사무엘상 2:12~21)

* 3.31(화) - 기동 : 용기(사무엘상 30:1~10)

* 4. 1(수) - 지붕 : 기도(누가복음 11:1~13)

**이경식 집사
5천만 원 후원**

중앙성서교회 이경식 집사가 학교발전기금 5천만 원을 후원하였다. 이 집사는 중앙성서교회 설립자 가족과 오랜 시간 친교를 이어온 정통 성서맨이다. 그는 "교회와 학교가 일관되게 지켜온 한반도복음화를 위한 복음전도자 양육의 사명을 올곧게 수행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태리 대학원 원우회 회장
1천만 원 후원**

대학원 원우회 정태리 회장이 학교발전기금 1천만 원을 후원해 주었다. 정 회장은 "학교가 말씀의 가치를 흔들림 없이 실천해 오는 것이 감사하다. 이 물질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 줄 성서인 양성에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평생교육원 보육 교육 관련 일정 안내****보육 교직원 집합 보수 직무교육**

장기 미종사자 1기 ⇨ 4/6(월) ~ 4/10(토)

보육교사 일반 1기 ⇨ 4/2(화) ~ 4/24(금)

장기 미종사자 2기 ⇨ 4/27(월) ~ 5/4(월)

보육 실무세미나(평가제 지표 반영)

보육일지와 관찰일지 ⇨ 4-1차반 4/6(월) 16:30~18:30

4월반 4/11(토) 9:30~16:00

상호작용 이해하기 ⇨ 4월반 4/23(목) 16:30~18:30

보육일지와 관찰일지 ⇨ 4-2차반 4/29(수) 16:30~18:30

총장의 편지 _ 최정권 총장

기다리는 마음



매주 목요일 기숙사 새벽 설교는 제 차례인데 이번 학기 설교 주제는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서 하신 일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재림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성령님이 주님을 가르쳐 보여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요즘 제 마음은 본인의 입장에는 어찌다 이 대학에 왔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보냄을 받은 안 믿는 학생들을 향해 있습니다. 안 믿는다는 말은 무한한 가능성과 신비를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믿는 일에 너무 익숙해 굳은 살이 박혀 있는 마음보다 거친 가시와 모난돌로 이루어진 마음이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채플 에 눈을 감고 있는 귀를 틀어막고 있는 마음이나, 두 눈을 크게 뜨고 떨어지는 말 한마디라도 더 잡으려는 마음이나, 새벽에 한 팔을 길게 내놓고 잠들어 있는 머리와 말 씀을 듣고 어둠 속의 기도로 흔들리는 머리까지 다 같은 하나님의 머리고 마음입니다.

사랑 은 강요해서 되지 않고 신앙은 억지로 생기지 않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면 옷을 벗듯이 하나님의 때에 안 믿어지는 마음이 믿어지는 마음으로 바뀌고 감았던 눈을 뜨고 늘어뜨린 팔을 모아 자신을 불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날 이 오기까지 우리가 할 일은 사랑 하는 일이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마음 의 조급함을 버리고...



이가영 직원 (성서학과 조교)

신
년
만
만



이주학 직원 (시용합학부 조교)

신
년
만
만

9회 말 시작되는 경기

대학 졸업한 뒤 조교로 일하면서 야구 좋아하는 동료들 따라 야구장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 한 팀을 응원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 팀의 팬이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응원하는 팀이 우승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안에서 인생과 닮은 순간을 발견하게 되었다.

2024년 4월, 광주의 기아챔피언스필드 경기를 관람했을 때였다. 선발 투수가 1과 1/3이닝 만에 마운드를 내려간 뒤, 타선마저 침묵했고 점수는 좀처럼 나지 않았다. 경기 초반부터 몸의 이상을 느끼고 자진해 내려간 선수가 걱정되었고, 먼 길을 왔는데 공격과 수비 모두 답답하게 흘러 아쉬움이 남았다. 자리를 뜨고 싶었지만, 함께 간 동료가 상대 팀 팬이라서 끝까지 남기로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8회 말, 긴 침묵이 깨지며 경기는 뒤집혔고, 결국 역전승으로 마무리 되었다.

비슷한 경험은 8월에도 이어졌다.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8회까지 득점 없는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자, 또 다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동료를 생각해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9회 초 기대하지 못한 대역전이 일어나 경기는 승리로 끝났다. 나중에 돌아보니, 인생도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앞으로의 방향마저도 뚜렷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하지만 야구장에서 경험한 두 번의 극적인 경기를 보며 깨달은 점이 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이 최종 결과를 볼 수 있으며,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결국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 야구에서 '승리'라는 결과에 이르기까지 선수들은 삼진을 잡다가도 볼넷을 내주고, 안타를 치다가도 다시 아웃이 된다. 흐름은 경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흔들리고 뒤집힌다.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길고 긴 인생이라는 시즌 속에서 종종 흔들리지만 맡겨진 몫에 힘써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고 있는 것 같은 순간도,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짧은 눈 맞춤 하나

합주에는 늘 작은 기대가 따라 붙는다. 오늘은 어디까지 흘러갈까, 정해진 것보다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이다. 실전에서의 합주는 연습과는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다. 정해진 코드 진행이 있지만, 그 안에서 순간적인 선택이 만들어진다.

건반을 연주하다 보면 흐름을 바꿔보고 싶은 타이밍이 찾아온다. 익숙한 그대로 가기보다 코드를 한번 비틀어보고 싶은 순간이다. 그 때 짧게 입 모양으로 코드를 던지고, 동시에 손이 먼저 움직인다. 그 순간이 긴장되는 이유는, 혼자만 바꾸면 바로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아주 짧게, 0.5초 정도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 있다. 짧은 시선 하나에 신호가 담긴다. 그리고 다음 순간, 베이스와 기타가 자연스럽게 반응하며 전체의 소리가 하나로 모인다. 그 짧은 찰나에 음악 색깔이 바뀌고, 처음부터 그렇게 연주된 것처럼 흐름이 이어진다. 설명도, 합의도 없었지만 분명하게 맞춰진 순간이다. 즉흥은 혼자하는 자유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감각에 가깝다. 서로를 듣고, 반응하고, 신뢰하는 과정 안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순간도 있다. 연습한 대로 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연주하다 보면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순간이 있다. 그 감동을 더 담아내고 싶을 때, 즉흥은 자연스럽게 시작된다.

일상도 다르지 않다. 계획대로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순간이 있다. 그 변화를 서로 받아주고 이어갈 때, 예상치 못한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러면서 생각해 본다. 최근 마음이 움직였던 순간은 언제였고, 그 감정에 얼마나 솔직하게 반응했는지.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는 좋은 순간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맞춰졌던 시간일지 모른다. 다음에는 또 어떤 순간 속에서, 그 짧은 눈 맞춤 하나로 새로운 흐름이 시작될까?

반세호의

목양칼럼



반세호 목사
(성서대학교교회담임)

그 밤의 침묵

(출애굽기 11장, 마지막 재앙의 날을 상상하며)

나는 아직도 그 밤을 잊지 못합니다. 그 밤은 숨소리조차 죄가 될 것 같은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 쥐었고,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읊조리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는 문을 닫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몰랐지만, 모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 이어서 또 다른 한 집. 잠시 후 애굽 곳곳마다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에 가까운 통곡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은 가슴을 치며 울었고, 아버지들은 무너진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족들도 밤을 찢는 울음소리를 토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한꺼번에 울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집과 집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횃불이 켜졌고, 다른 집에서는 사람들이 바닥에 무너져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 이상한 일은 우리 마을은 아무 소리도 없었고 너무도 조용했다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 안전하게 숨죽여 지켜볼 뿐이었고 우리 집 가족도 평안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울음이 끊이지 않는데, 우리 마을만은 이상할 만큼 깊은 침묵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 마을은 괜찮은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

요즘 뉴스를 보면 출애굽기 11장의 그 밤이 떠오릅니다.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습니다. 어느 집은 아들, 다른 집은 가족을 잃은 통곡이 밤을 가르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평안한 밤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오늘의 안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의 포성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141

심 표

정여민

책속의 글자도 쉬어 가는 곳이 있고
자동차가 달리던 고속도로에도 쉬어 가는 곳이 있고
해남도 구름에 가려 쉬어 가는 곳이 있듯이
바람도 쉬어 가는 곳이 있다.

마음이 아픈 사람도
지금은 쉬어 가고 있는 중이다.



잠시 멈추고,

<https://blog.naver.com/iamjh00/223114146066>

글을 쓸 때 문장 부호는 문장의 구조를 잘 드러내고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쉼표 등은 문장의 종결이나 휴지(休止)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한다. 마침표·느낌표·물음표는 문장의 끝에 오고, 쉼표(,)는 문장 중간이나 낱말 사이에 놓여 잠시 쉬어야 할 곳을 나타낸다.

만약 문장에 쉼표가 없다면 문장의 호흡은 어떻게 될까? 문장의 호흡이 길기로 유명한 염상섭 작가의 소설을 읽다보면, 어디서 숨을 쉬어야 할지 헤매다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기 일쑤다. 이때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바로 쉼표다. 우리 삶이 그러하듯, 글에도 잠시 숨을 고르며 쉬어갈 수 있는 쉼이 필요하다.

시인은 말한다. “책속의 글자도 쉬어 가는 곳이 있고, 자동차가 달리던 고속도로에도 쉬어 가는 곳이 있고, 해남도 구름에 가려 쉬어 가는 곳이 있고, 바람도 쉬어 가는 곳이 있고, 마음이 아픈 사람도 쉬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 천지가 꽃이다. 눈이 부시다. 바람에 실려 온 향기에 마음을 빼앗기며, 잠시, 쉬어감이 어떠한가!

머물고 싶은 곳

최정권 | 202604



정해진 기간에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친 뒤에는
살아야 할 곳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욕심이 허락된다면 조금은 큰 공간에서
강물을 바라보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던 숫자를 바람에 보내고
머리에 새겨진 이름들을 강물로 씻어내고
걸어가면서 다가오는 시간의 변화를 느낄 겁니다.

강가 옆에 늘어선 커피 파는 집들을 하나씩 방문하고
놓인 의자에게 무거워진 몸을 놓고 인사할 겁니다.
하나 또 하나 또 다른 하나로
내가 여기 왔다고...

지는 석양이 그 붉은 빛으로 저를 있는 힘을 다해 안아 줄 겁니다.

이야기 할머니가 유아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다
학
어
리
인
이
집

할머니 무릎 교육 프로그램

대학어린이집은 한국국학진흥원 주관의 '무릎 교육을 되살리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에 선정돼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소경의 과정을 이수한 여성 어르신이 어린이집을 방문, 아이들에게 옛이야기와 선현의 미담을 들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야기 할머니와 주기적 만남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을 경험하고, 어른 공경과 정서적 유대감을 쌓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 무릎교육의 높은 교육적 효과를 위하여 '가정 연계 활동'을 적극 지원해 갈 예정이다. [감사반 고은아 교사]

이바라키대학 학우들이 사회복지 실천 사례를 학습하고 있다.



학
우
들
의
학
습
회
의
일
과

일본 이바라키 기독교대학교 내방

지난 12일 일본 이바라키 기독교대학교(지도교수 오은혜) 학생 8명이 한국 지역사회복지 현장 이해를 위해 우리 월계중합사회복지관에 내방하였다. 이들은 사회복지 전공자로 우리 복지관이 현장에서 펼쳐가는 기관의 역할과 순기능 및 장단점 등을 살펴보기 위해 방문하였다. 학생들은 지역 사회와 자원 연계 및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하며 현장 교류에도 많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번 방문은 사회복지 분야의 국제화를 통한 상호 관심사 공유라는 긍정적인 시간이 되었다. [지역사회조직팀 이동재]

신입 영유아에게 놀이를 이용한 어린이집 적응을 돕고 있는 현장



현
장
의
적
응
도
움

신입 적응 프로그램

꿈빛어린이집은 새 학기를 맞아 8명의 신입 영유아를 대상으로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게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초기에는 부모님 또는 익숙한 양육자와 교실에서 놀며 환경 탐색을, 이후 부모님과 이별 경험 및 친구들과 점심 식사, 낮잠까지 익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과정은 영유아 개개인의 기질과 적응 속도를 고려해 융통성 있게 조정하였다. 그 결과, 영유아들은 어린이집 생활의 불안을 줄이고 일과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게 되었다. 학부모들도 어린이집 환경을 직접 경험하고 교사와 소통 및 신뢰 형성까지 이뤄낸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초롱반 김성연 교사]

소그룹 사랑방 모임에 참여한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고 있다.



성
도
들
의
교
제

사랑방 개강

성서대학교회는 8일, 2026년도 첫 사랑방을 개강하였다. 사랑방은 매월 셋째 주일 예배 후 온 교우들이 사랑방으로 흠어져 말씀과 삶을 나누며 신앙의 성장을 함께 이뤄가는 프로그램이다. 개강 첫날 각 사랑방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한 몸임을 기억하는 코이노니아 언약식을 가지고 공동체로 서로의 경건과 성숙을 위해 기도 and 섬김을 다짐하였다. 올해도 교회가 사랑방과 각 전도회의 유기적 관계 속에 말씀 중심의 교제와 성장으로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홍성진 목사]

다양성 중심의 인권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아동들



학
우
들
의
학
습
회
의
일
과

다름과 틀림의 차이 교육

월계지역아동센터는 지난 17일 20명의 아동에게 '다양성' 중심의 인권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상호 존중의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핵심은 아동들에게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또래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면서 서로에 대한 고유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들은 쇼츠에서 "그냥 따라 했어요", "그 말이 인종을 차별하는 뜻을 담고 있는지 몰랐어요"라며 무심코 사용한 언어가 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올바른 언어 사용을 다짐하였다. [서애진 생활복지사]

5세 아동들이 키즈카페 중평공원점에서 시코딩로봇 교육을 받고 있다.



나원영이중평공원점운영리포트

시 코딩로봇 체험 프로그램

서울형 키즈카페 중평공원점이 13일부터 시 코딩로봇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는 2개 기관의 5세 아동 36명이 팽이 만들기 및 '세발자전거'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유아들은 도구를 활용한 배움에 즐거움을 보였고 시 코딩이 디지털 기술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해줘 의미가 컸다.

특별히 로봇 조작용은 문제 해결과 창의적 사고, 협동과 사회성까지 발달시켜 주었다. 단계에 맞춘 난이도로 성취감과 참여 의욕까지 높이며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시범을 거쳐 정규 과정으로 편성되었고 월 1~2회 꾸준히 운영해 갈 예정이다.

[보육전문요원 김민정]

학부모에게 어린이집 운영과 교육 방향을 안내하고 있다.



상계5동어린이집

학부모 보나 티타임

상계5동어린이집은 23일부터 3일간 학부모에게 어린이집 운영의 이해를 돕는 '학부모 보나 티타임'을 진행하였다.

먼저 표준 보육 및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놀이 중심 교육과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의 통합적 운영을 안내해 주었다. 장애와 비장애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통합보육의 중요성, 이해와 배려가 긍정적인 사회성을 키워 줄 수 있음에 큰 공감을 나타냈다. 이어서 학부모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상호 의견 등을 나누면서 어린이집의 교육과 운영에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형성하는 값진 시간이 되었다. [초록풀잎반 강혜진 교사]

수락산 산책길에서 자연 친화적 신체 발달을 즐기는 유아들



늘사랑어린이집

자연 숲 체험

늘사랑어린이집은 지난 19일 0~3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한 신체 발달과 자연 친화적 경험을 위한 '수락산 산책'을 진행하였다. 영유아들은 숲속의 파릇한 새싹을 보며 봄을 느끼고, 주변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아지, 오리 등 다양한 동물과 만나서 생명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는 경험도 하였다.

형·누나들은 동생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며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배려의 마음을 갖도록 도움을 준 시간이 되었다.

[신나는반 김현애 교사]

심리극을 이용한 부부 관계 개선 교육이 진행 중이다.



자담유치원노원점리포트

부부 심리극

월계우리통합상담소는 13~14일까지 노원경찰서, 노원구청 소나무센터와 협업하여 노원구에 거주 중인 부부 4쌍을 대상으로 부부간 관계 회복을 위한 캠프를 진행하였다.

캠프는 심리극 전문가 김영한 소장이 심리극을 통하여 부부간 관계 회복 문제를 다루었고, 도봉미션트립으로 북한산 생태탐방원에서 서로에 대한 존경과 상호작용의 기회 등을 제공하였다.

참여자들은 심리극에서 자신과 배우자의 감정, 생각, 행동의 이해와 해결책 도모를, 도봉미션트립에서는 부부간의 친밀감과 존중의 경험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김지은 상담사]

「성서대학돕기운동」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 2025년 2월 20일부터 2026년 3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 **접수처**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1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이경식(중앙성교회)	5천만원(운영)	성음문화재단(이흥배 목사)	300만원(장학)
강우정.강진(이사장)	3천50만원(운영)	아산사회복지재단	300만원(장학)
성서대학교회(반세호 목사)	1천800만원(운영)	민찬양(동문)	300만원(운영, 장학)
선교기부금	682만원(선교)	최정권(총장)	140만원(운영)
정태리(대학원)	4백35만원(운영, 장학)	헤림교회	120만원(운영)
홍콩중앙교회(정승대 목사)	3백55만원(운영)	성서북부동문회	100만원(운영)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성서밀알선교회	15구과	강규성 김은호 최선희	한국인재인증센터
1구과	재학생 및 가족	부설기관	5구과	2구과
김광일 김소영 남성희 백해송	1구과 황미숙	5구과 월계지역아동센터	15구과 김화영	김동석
송기철 양은숙 오세천 이경일	교직원 및 가족	중앙성교회	1구과	단체 및 기관
이광삼 이대환 임종길 채종원	1구과 윤혜진 허윤민	1구과 이승학	10구과 김용철	5구과 상일교회
최선경 최진희	2구과 강민경 강승현	일반	1구과 김병설 이상태	10구과 경성교회/상록교회
2구과 길득희 주요한/생명의빛교회	3구과 박태수			
4구과 배정환	5구과 안정선			
4.1구과 박강한	10구과 배진형 최육열			
5구과 강경옥 박정하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1만원	강나경 강민아 강순성 강애슬 강옥경 강은해 강정희 강주옥 고대운 공승천 광미화 광원균 구본길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순길 권순용 권유철 권정인 권희조 금동욱 김필규 기상혁 김기영 김남해 김도훈 김두환 김명화 김명희 김무열 김민정 김민용 김병림 김선근 김성애 김세현 김소영 김수연 김수정 김순덕 김순화 김승훈 김승희 김예진 김유미 김은경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용환 김일준 김재현 김재현 김경희 김진 김진숙 김진영 김혜은 김한나 김현정 김현철 김혜영 김화석 나선영 남궁화 남범수 남성휘 노정현 노하나 노만 류요한 류한나 류희정 맹현진 문성령 문수란 문정혜 문홍철 민정은 박경수 박수진 박순임 박윤복 박재숙 박재신 박중주 박지영 박창민 박태익 박항식 박형택 박해인 방지연 배은휘 배창경 배효순 백명희 백서영 백연옥 백연주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서유미 서웅 서진희 서현 서희영 손명배 손영화 손진규 송민규 송바울 송향숙 송현미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연정 신영옥 신은혜 신지은 신두한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양주향 양지현 양혜영 엄미자 엄보영 연현숙 오세천 오찬미 오재엽 오희호 용아름 우종영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수정 유영진 유주홍 윤영원 윤정숙 윤지준 윤현중 이광삼 이두현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복희 이상용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선정 이수진 이수진 이신재 이영식 이용원 이윤아 이윤주 이은광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종근 이진 이진경 이철승 이학준 이해렬 이현우 이현섭 이현지 이해란 이화연 이화기 인지혜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장동명 장은국 장은희 장익심 장희남 전명수 전명자 전미영 전상호 전아름 전아영 전한나 정다연 정선도 정술기 정영교 정은희 정민철 정재연 정주영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조민을 조소연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유민 조은경 조차현 조현석 주민자 주성현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채종원 최규봉 최서희 최선경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은빛 최인호 최중은 최진희 최현정 탁국현 탁윤석 하수현 하진 하진우 한경순 한상장 한혜우 허영숙 홍선호 홍성대 홍정심 황예린 강해동이 설에스터 황보혜영 손갑은교회 / 열매맺는교회	이의선 이재은 이종임 이흥희 이현우 이해영 임은희 임은희 임주영 장유경 장재원 전영희 정나나 정복자 정성민 정영용 정옥순 정완 경현빈 조소경 최수지 최윤경 최윤준 최인경 최현우 최효정 탁명화 하지혜 허춘선 등대교회	고은영 권서영 권오규 권은지 김은정 김지애 민승철 박기혁 서성숙 성인선 윤문순 이길순 이다윤 이성은 이안나 이주연 이현지 임연식 장영훈 전지혜 조은경 차주영 최소린 최은희 탁현정 황영숙 좋은교회	박주은 배정환 신은진 임수경 홍진옥	강경옥 강성훈 김기숙 김진경 남영란 남정부 남희경 박찬혁 서명주 송복순 신상춘 유양숙 이기훈 이병철 이부호 이유나 이지은 최경환 가학교회 성서밀알선교회	양연선 경동주 김중숙 김진만 백승우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이정원 이례장학	유선미 성낙표 박예찬 박강한 성서북부동문회 민찬양	김윤영 나예린 박기범 백인애 성경자 송지민 심희정 양은성 이다원 이동기 이미숙 이성란 이수진 이연신 이정윤 이하람 이혜정 임동화 임중우 장연정 전계화 정현규 조윤경 지중배 한승천 한경화 홍상기 홍장훈	2만원 강은덕 강현중 권영진 김선옥 김선화 김성아 김승희 김정숙 김지영 김지혜 김창환 김형태 문순용 문혜진 박유순 박윤경 송동식 신동숙 안차남 여진옥 연성희 오명미 유효진 이동훈 이만희 이미영 이선경 이선미 이소희 이승진 이승찬 이영구 이은영 이해란 임정용 장영순 최민정 최영숙 최유승 최강호 허정	3만원 박보병 배정숙 전희문 최경규 황미숙	4만원 정우숙	5만원 김남숙 김명자 김희선 박선희 박인규 손미연 송희경 안종현 윤수호 이재현 이해영	6만원 정주화	10만원 장은정	4백35만원 정태리	교직원 및 가족	1만원 강신애 광한나 권관희 김미영 김상일 김선준 김세진 김애란 김유진 김지환 김춘하 김형중 김호현 류은미 박남일 박덕자 박명우 박서호 박인혁 박주양 반우형 서광철 신군양승원 유연자 이기영 임수아 임재혁 장경순 전귀선 정옥환 조성찬 진달래 허윤민	2만원 강민경 강승현 고진주 권민주 김남준 김세원 김창호 문건희 문지예 민경은 박예진 반종원 배민정 안호 오철송 유성현 이은영 이은혜 이지민 강길정 장지순 정순애 정지용 조철남 최남영 한상만 한정숙	3만원 권오섭 김창현 방진희 양희정 여진희 유수연 이소연 이철희	4만원 윤혜진

기부자 명단

5만원	구광면 김성호 김원빈 김현동 박상민 신재윤 양단아 유미나 이길형 이상일 장성희 장경순 전영호	조정선 조하나 한성실 한순애 황서린 황시은	10만원	김용철 김윤규 송인숙 현희철 중앙성서교회 바울선교회	/목양교회/무신인터내셔널 /주님순교회/행복한교회	
6만원	권순범 신지수	2만7천원 김은미	12만원	황인돈 김순자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 / (주)에이스외식산업
7만원	김병수 임환석	3만6천원 고미숙 구영신 김동석 김민자 김배열 김인자 김일선A 박 선 박효민 반해빈 반해성 석경순 선종인 이관영 임용택 장기영 천재우 최영태 허진순 현호민 김근열 김주아 박은경 유형장	5005만원	이경식	3만원	동신자위/우리교회 /의정부좋은나무교회 /주식회사 이수전기
10만원	김정숙 고미숙 권용준 김소희 김정숙 김현광 김현욱 김형미 문무열 배진형 신금주 안창선 안현미 오은주 원영희 이민규 이성이 이소경 이슬기 장인순 조현진 조혜경 최사랑 최영태 최육열 최은희 현우석 김정원(신) 김정원(영)	4만5천원 고지현 김동수 김영숙B 김정희 김춘환 김현석 송재철 심화심 이숙영 이정임 조병하 최선심 김용희 김영현 김원태 김유미A 문명래 박세건 반세호 서수희 이병윤 임성일 최대만 한진호	1만원	유재란	4만원	플랜팅시즈
11만원	최지은	9만원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5만원	복수교회/다드림교회
13만원	김중환	16만원	1만원	안종민	10만원	(주)바다나라 / (주)아레E&C이레디자인 /가성교회/경성교회 /구리중앙교회 /도봉성산교회/동산교회 /두암산업(주) /상록교회/성복중앙교회 /의정부제일교회 /전주서부중앙교회 /청평교회
15만원	강규성 김덕현 김은호 김희수 안정선 한진호	18만원	5만원	한옥경	15만원	상일교회
20만원	김주아 김창원 박 선 박태수	81만원	1만원	김소아 문경녀 권경숙	20만원	전하석/ (주)소원기건 /섬기는교회/인천제2교회
25만원	이강동	2만원	2만원	한옥경	30만원	한민제일교회
30만원	김승욱 임지영	3만원	5만원	한옥경	99만원	서울광명교회
35만원	최선희	5만원	10만원	다빛교회 삼일성서교회	300만원	성음문화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140만원	최경권	10만원	2만원	한옥경	356만원	홍콩중앙교회
3050만원	강우영 강 진	5만원	1만원	고관표 고나연 고다연 고민수 구필례 권숙영 권창석 김명호 김미라 김민경 김범설 김삼례 김양권 김유벽 김인호 김철수 김향숙 김혜란 김효진 문해영 박미숙 박영미 박영희 박혜신 백은정 서민석 안애숙 오미라 오미선 오현숙 유금례 유화실 윤수현 윤준영 이관현 이사랑 이성태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우진 이재하 이재현 이현수 임숙자 조동빈 조목장 조성민 조연상 조여원 조은혜 진은승 최경숙 최범식 최은실 허수보 황영수 한국인재인증센터	682만원	선교기부금
부설기관		성서성교회	일반		지역사회	
1만원	김효진	2만원	1만원	고세정 김세현 김순애 김영미 김용술 김의자 김정희 김춘배 박혜원 안승수 이상규 이수연 이승학 이태학 이해영 최영란	1만원	김은지 김지은 김혜아 송유정 오동준 유주연 유희주 이유리 이은정 임재택
3만원	권효진 박천선 변송이 안미희 장나혜	5만원	2만원	김의남 박문수	2만원	윤종찬
5만원	이인경 차도영 월계지역아동센터	1만원	3만원	왕순희	3만원	구세관 문유나 박미라 오윤아
10만원	김선영 박빛나 장수진 조지선	2만원	5만원	표길홍	5만원	이지연 진양희
15만원	권정아 김화영 지주나	어린이교회	장자교회		7만원	김선화
20만원	김신덕 차 건	1만원	4만원	권경숙	35만원	오동준
권선제일교회		2만원	5만원	장자교회		
1만원	이상규	일동성서교회	주향교회			
동광교회		1만원	1만원	유병우		
1만원	김복례 한미희	2만원	2만원	경우진		
밀알교회		3만원	10만원	주향교회		
1만원	서효정	중양성서교회	1만원	고세정 김세현 김순애 김영미 김용술 김의자 김정희 김춘배 박혜원 안승수 이상규 이수연 이승학 이태학 이해영 최영란		
삼일성서교회		2만원	2만원	권순호 김덕규		
1만원	김초롱 오성근 정혜란 한금순	3만원	4만원	신영욱 오근수		
서문교회		5만원	5만원	김옥자 이우근 한금례		
1만원	강선애 윤인호	중앙성서교회	1만원	김포예수사랑교회 /꿈꾸는교회 /늘푸른교회/맘키즈푸드		
성서대학교교회		4천5백원	정태성			
9천원	김영숙 오경모 이경향 탁경미	1만8천원	강유진 고경숙 권은정 김도매고 김미정B 김선교 김성진B 김성철 김애숙 김유미 김일선B 김지윤 김현미 김희자 김희현 민영빈 박상희 박영숙 박영신 박주현 박천순 박태수 배성아 배성준 서영우 손원자 안봉숙 안종인 오치숙 용정자 윤재필 이경미 이길우 이소경 이영희 이정숙 이정자 이종욱 이행자 장근문 장은정 정나영 정락은 정현숙			

누계(20260301~20260320) 90,194,700

한국성서대학교 3월 「발전 후원금」

일반(일시불) 후원자 (합계 79,899,700)

이경식(일반) 50,000,000원 | 성서대학교회 18,711,700원 | 정태리(재학생) 4,308,000원
 민찬양(동문) 3,000,000원 | 헤림교회 1,200,000원 | 성서북부동문회 1,000,000원 | 서울광명교회 990,000원
 김태일(일반) 500,000원 | 김옥자(일반), 녹수교회 50,000원 | 이길순(동문) 30,000원
 강민아, 김남혜, 도만(전원 동문) 10,000원 | 김근철, 유연자, 이해영(전원 일반) 10,000원

약정 후원자 (합계 130구좌/연간 납입예정액 15,600,000원)

50구좌 정태리(재학생) | 10구좌 경성교회, 주향교회, 햇빛교회, 김승욱(교직원)
 5구좌 임지영(교직원) 현우석(교직원) 상일교회 조예영(일반) | 3구좌 정미옥(일반) 축복된교회 에덴종합사
 2구좌 김태용(동문) 박윤경(동문) 한옥경(일반) | 1구좌 : 김광일, 송기환, 이대환, 임종길(전원 동문) 정현규(재학생)

일시납 누계(2026.3.1~2026.3.24) 79,899,700원 | 약정자 누계(2026.3.1~2026.3.24) 130구좌 | 연간 납입 예정액 15,600,000원